

오늘부터 룸메이트랑 모닝조깅을하기로 했다. 6시부터 30분 정도하기로 했는데 꼭 김영철의 FunFun투데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조깅을 하고 싶어서 그 시간으로 정했다. 5시 50분에 예정대로 알람이 울렸다. 잠결에 창문을 슬쩍 보니 날씨가 약간 흐렸다. 귀찮기도 하고 잠도 덜 깨서 둘 다 잠정적으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룸메이트는 다시 바로 잠이 들었지만 나는 라디오가 꼭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일곱 시까지 라디오를 듣고 다시 잠에 들었다. 열시 쯤 되었을까?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다. 새벽에 보다가 잠든 데스크터가 켜져 있었다. 잠자리는 그대로 둔 채 한 시간 정도 데스크터를 더 봤다. 두시까지 강남역에 도착해야 하는데 샤워하기 귀찮았다. 축제 때 술에 취해 넘어져서 다친 상처 때문에 샤워하는데 꽤 오래 걸렸다. 너무 불편하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준비도 늦고 머리도 맘에 안 든다. 그래서 높이 묶어버렸다. 늦어서 빨리 나가야하는데 준성오빠한테서 카톡이 왔다. 인강 출책 좀 해달라는 부탁이다. 두 개 해달라고 했는데 오빠도 일하는 중이라 카톡이 늦는다. 하나만 해주고 나도 급하게 집을 나섰다. 새벽엔 날씨가 흐리더니 더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다. 이제 진짜 여름인가보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내내 시험 준비를 했다. writing 시험은 자신 있었지만 막상 보려고 하니 떨린다. 특히 에세이 쓰는 부분이 걱정된다. 버스 안에서 일부러 팝송만 들으면서 계속 모범답안의 서론 본론 결론을 읽었다. 강남역에 도착한 2시 정도였다. 2시 반까지 입실인데 CBT 센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11번 출구에 크게 생긴 YBM 건물에 갔는데 안내가 없다. CBT 센터라고 써 있는 곳과 2층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결국 4층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가 아니고 다른 건물이란다. 그래서 헐레벌떡 시험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도착하자마자 시험이 시작되었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답안지에 마킹하고 시험을 기다렸다. Writing 시험이 시작되었고, 이 메일 문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쓰려고 노력했다. 드디어 에세이 문제까지 왔다. 에세이 문제는 “높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 낮은 봉급을 받는 사람에 비해 행복한가?” 였다. 취업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내 입장을 정리했다. 문법에 맞는지 확신이 없다. 외국 친구들과 이 메일을 하는 데서는 문법이 틀려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이건 시험이니깐 더 신중해야 한다. 문장을 다듬고 다듬어 306자를 완성해서 답안을 제출하니 시험이 끝났다. 약간의 시간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맞춰 4시에 시험이 끝났다. 오늘 처음으로 삼성 멘토링을 하는 날이다. 신논현역 쪽에 있는 토즈에서 모이기로 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토즈에 도착하니 멘토님과 멘티들 몇 명이 있었다. 어색하고 뻘컘했지만 멘토님의 직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멘토님 성격이 나랑 너무 비슷해서 마음 속으로 너무너무 반가웠다. KOICA 아니면 삼성에 입사하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 멘토님께 자문을 구했다. 멘토님은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삼성에서 같은 직무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셨다. 내가 예정대로 KOICA에서 일을 해서 경력을 쌓고 삼성으로 입사할 것이라면 나는 KOICA에서 관련 직종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멘토님이 하시는 일도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업무에 대해 내 주특기인 PPT를 만들어 놓고 과제를 해야겠다. 좀 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이 취준생이다 보니 얘기가 취업 쪽으로 흘러갔다. 다음에 만날 때는 모임이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술도 한 잔 하면서.....^^;; 토즈가 있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저 멀리서 마크가 보였다. 마크는 우리 프로젝트 방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필리핀 학생이다. 마크와 그 친구 RC는 우리 과 모임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 방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MT 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마크와 더 친해졌다. 마침 나도 서점에 가던 길이었었는데 마크도 서점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마크는 맨날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하기만 했는데, 강남역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웠다. 드디어(!) 실험을 마치고 책 사러 나왔다고 했다. 너무 어색했지만 마크와 탐앤탐스에 가서 커피마

시면서 수다를 떨었다. 마크가 treat you 해주어서 카푸치노를 마셨다. 마크는 올해가 박사 마지막 과정이라고 했다. 포스트 닥을 싱가포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 할 거라고 했다. 나도 마크한테 일 년정도 쉬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캘리포니아에 가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마크는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나중에 필리핀에서 교수를 한다면 몰라도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곳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You really like Korea! It's good! 하니까 마크가 웃었다. 마크랑 이야기하는 사이에 외박나온 사촌 대규한테서 카톡이 왔다. 벌써 자대 받은지 2주 되었다고 편지 써달란다. 같이 교보문고로 들어가서 조금 걷다가 See you in 명지! 하고 각자 책을 보러 떠났다. SSAT 책도 살펴보고 토익 스피킹 or 라이팅 책, 토익 실전문제 책도 살펴봤다. 저번 주 취업준비 교수님이 추천해준 "하워드의 선물"도 읽어봤다. 몇 장 읽고 나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책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고등학교 때였나 읽어서 그 책을 다시 한 번 읽고 하워드의 선물을 읽을지 생각해보기로 했다. 평소에 관심 있던 인문학 관련 책들도 살펴보고 올 여름 여행 계획도 세워야 해서 여행 서적도 뒤적거렸다. 난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다. 20대가, 대학생살이, 지금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서점을 나서니 어둑어둑 했다. 서점 공기가 너무 답답했는데 나오니 맑은 공기를 쉴 수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스타벅스로 향했다. 일요일 밤, 술집 거리는 화려하고 사람도 넘쳐나는데 카페는 잘 안가나보다. 한가한 스타벅스에서 치즈 베이글이랑 쫄깃한 소시지롤이랑 고민하다가 한 번도 안먹어본 쫄깃한 소시지롤을 골랐다. 음료는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는 프라푸치노! 지금 프로모션 행사 중이라 모카쿠키크림블 프라푸치노를 주문했다. 메일에 두유 휘핑이 새로 나왔다고 하길래 호기심에 두유 휘핑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두유 힙을 올리면 사이즈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단다. 흔쾌히 오케이! 게다가 골드 회원이라 모은 별로 무료 음료 쿠폰이 있었다. 6600원에 사이즈 무료 업그레이드라 500원이 빠지고, 음료는 무료. 예전에 충전해 둔 스타벅스 카드에 1600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천 몇 백원만 계산하고 행복한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취업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여러 가지 인턴 지원 기회를 버리고 워크캠프에 참가하는게 과연 잘하는 건지, 일 년을 쉰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자꾸만 올라오는 채용공고에 대한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카톡을 했다. 3학년인 후배들과 석사 1학년인 영수 오빠가 있는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푸념을 했다. 용인에 도착하니 맑은 산공기가 좋았다. 나는 원래 도시를 좋아하고 덥고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왠지 산공기가 너무 좋다. 목과 어깨가 뭉쳐서 오는 두통인 고질병이 또 도졌다. 엄청 빠른 걸음으로 자취방에 도착했다. 갈 때와 같은 길을 걸어오는 데, 이어폰에서는 내려갈 때와 같은 음악이 나왔다. 몇 주 전에 발견한 검정치마의 "날씨"라는 노래였다. 검정치마 노래는 왠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집에와서 주절주절 해림이랑 이야기하고 해림이가 치킨을 시켰다. 다이어트 해야하는데 내일은 꼭 모닝 조깅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보며 이만 치킨 먹으러 가야겠다.^.^